

사랑이 이루어지는 무안연꽃축제 오는 21일 팡파르

올해로 제25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는 긴 세월이 말해주듯 꾸준히 성장해 온 전남 생태관광의 메카로 불리는 축제이다.

무안군(군수 김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는 연꽃을 주제로 한 연꽃미디어 주제영상관, 무더위를 식혀줄 연기능성 체험장,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연꽃 미디어파사드 및 EDM 디스코 파티, 연빛달빛 야간행사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구성해 행사를 찾는 분들에게 사랑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행복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여름철 전남지역 대표축제인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안심관광지인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먼저 '회산 백련지에 핀 사랑'을 주제로 수련공원에서 펼쳐지는 실경

주제공연에서는 회산백련지의 탄생배경과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춤과 노래로 펼쳐진다.

다음은 '연꽃미디어 주제영상관'이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 2층에서 운영되는 주제영상관은 확장된 무안연꽃축제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할 또 다른 장소는 '연기능성 체험장'이다. 체험장은 연의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안군축제추진위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줄 화려한 연꽃 미디어파사드와 디스코파티이다.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는 오는 21일 불꽃쇼와 함께 선을 보이고 22일부터는 전문 DJ와 함께 EDM 공연을 접목해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된다.

/윤규진 기자



무안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는 연꽃을 주제로 한 연꽃미디어 주제영상관, 연기능성 체험장,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연꽃 미디어파사드 및 EDM 디스코 파티, 연빛달빛 야간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구성해 행사를 찾는 분들에게 사랑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행복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 /무안군 제공

함평군, 7월 재산세 부과

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만5천456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관내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21억 4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천 800만원(10.17%)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위택스(스마트폰, PC),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신청을 한 납세자는 7월 23일과 8월 1일 현재 잔고를 유지해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강진, 청소년 정책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목소리를 담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다"

강진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청소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여해 퍼실리테이션 회의 기법을 활용해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강진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월까지 정책아이디어 구체화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청소년 정책 발표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 및 정책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매년 15명 내외의 청소년을 위촉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기간은 1년이며 청소년 정책 제안, 기관방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잠재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은 061)430-598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욱 기자

신안군, 연료운반선 '1004에코호' 취항

총사업비 25억 원 투입한 228톤 규모 차도선

전국 최초로 공영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번에는 연료운반선 '1004에코호'의 건조와 시험운항 등 모든 검사를 마치고 최근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장과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해읍 송공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4에코호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한 228톤 규모의 차도선으로 5톤트럭 8대를 선적할 수 있고, 승선인원은 15명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섬 주민들에게 LPG, 휘발유 및 생필품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선박 내 크레인 2기를 설치해 해양에 밀려드는 폐기물 모자반과 해양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운송할 수 있는 다목적 화물선이다.

1004에코호 운항은 압해·지도·증도권, 비금·도초권, 신의·하의·장산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운항 할 예정이다. /장흥근 기자

목포,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접수

목포시가 이달 한달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지난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21세 이상 28세 이하(1994~2001년 출생자) 청년이다.

이번 추가 접수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거주 기준

일을 공고일인 7월 1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청년에게 기회가 제공돼 대상자가 늘어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인당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에게는 10만원이 차액돼 지급되고, 상

반기에 선정된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오는 9월 중 체크카드로 발급되는데 지원금은 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학원 수강,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전남에서 연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치매안심센터 '28정춘 영화관' 운영

영암군보건소는 최근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청춘쉼터와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기억찾기' 일환인 '28정춘 영화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8정춘 영화관은 직원들이 손수 만든 작은 영화관으로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추억의 뽑기판 게임을 통한 선물 및 바로 튀긴 팝콘과 다양한 음료를 제공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했다.

영암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예방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유빈 기자



영암우시티 Jangseong 장성군

